

살미첨자의 바깥머리는 初・二諸工이 모두 쇠서로 깎여졌는데 仰舌에 가까운 모습을 갖고 있으나 대단히 얇과하게 깎았다. 그러나 線은 날카롭다. 外目道里를 받는 공포 部材는 雲工形狀으로 되어 있다. 살미첨차의 안쪽 부분은 하나로 모두어져 梁捧이 되어 퇴량을 받도록 하였다. 퇴량 이상의 部分은 近來 天井을 만들어 놓아 原形을 살필 수 없으나 樣式으로 보아 연등천정이었음을 알 수 있겠다.

여기서 注意를 환기할 것은 귀공포 부분이다. 흔히 柱心包의 境遇는 맛배지붕의 形式이나 이 建物은 팔작지붕이므로 추녀를 받기 위하여 왕피를 짚야 하였고 또 그것을 받을 공포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집은 架構는 柱心包系이면서 공포를 多包系로 하여 맛배지붕을 結構하도록 한 開心寺 大雄殿과는 反對가 되는 것으로 注目할 만한 折衷方式인 것이다. 이 건물의 價値는 여기에 集中된다고 하여도 過言이 아니겠다.

概略을 살펴본 셈이다. 이 建物의 結構方法이나 공포의 양식은 周圍의 系譜에서 얻어진 것처럼 보인다. 羅州一帶의 建物에서는 이러한 手法로 建築되어진 것들을 屢屢히 發見할 수 있다. 특히 공포는 羅州 鄉校 大成殿과 一脈相通하고 있어 注目된다.

本建物 前方의 八脚門도 同時에 建築된 것인 듯한데 이 門의 手法를 羅州 鄉校의 中門과 比較하면 비록 그 建築되어진 目的과 時期는 달라 異狀을 徵하였으나 거의 同一한 것이라고 하여서 좋을만한 것이다.

結論하자면 이 地域에서 같은 時期에 지어진 建物中 錦城館은 建築史上 上반드시 學論되어야 할만한 것이다.

보통들 이 집을 客舍였다고 하는 모양이나 客舍는 따로 碧梧軒이 있었고 이 錦城館은 銀杏亭 남쪽에 特使 李有仁이 지은 집이다. 後에 建物과 名稱이 混沌되었는지는 後考를 기다릴 밖에 없다. 이 建物은 十五, 六世紀에 지었다고 推定된다.

## 金景漢 白磁墓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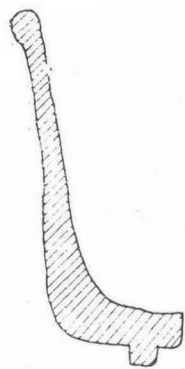
鄭 良 謨

근자에 李洪根氏 所藏品中에서 金公의 墓誌를 調査할 수 있는 機會를 얻어 여기 紹介해 두고자 한다. 이 金公은 바로 前號에 紹介한 墓誌의 主人 金公在仁의 曾祖父로서 그의 父 汝鍵은 官이 修撰에 이르렀으나 金公은 出仕치 아니하였다.

이 墓誌는 金公의 卒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金公의 六世孫과 七世孫이 燔造하여 後에 奉安한 것으로 아마 先代의 墓를 移葬하고 봉한 것 같다. 이 墓誌는 二重으로 되었으며 위에 뚜껑이 달려 있는 특이한 構造로 되어서 뚜껑은 직경 一七cm의 圓形으로 扁平한데 緣部에서부터 조금씩 경사져 올라가다가 中心部에서 직경約三cm로 切斷되었다. 刻 墓誌



에는 『學生義城金公之墓』라고만 써어 있어서 墓誌의 表題文이 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것에는 『學生義城金公之墓異坐』라 題하고 一段을 낮추어서 一行八字 十一行으로 金公의 大略系譜와 婦人墓의 所在地等을 記錄하고 다시 二段 낮추어서 『六代孫喆林鍾村七代孫昌世昌一等埋』라 하여 後에 埋之한 것을 三行으로 記錄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金公의 生年이 一六八七이요 卒年이 一七五九年이나 金公의 曾孫인 金在仁의 卒年이 一八四三年이므로 차례로 推定하면 一九〇〇年初가 이 墓誌의 製作年代가 아닌가 한다. 一重墓誌中 밖의 것은 高一九cm 口徑一五·七cm、底徑十一·八cm、胴幅十八·四cm이고 흔이 李朝前期 高臺鉢에서 볼 수 있는 형체에 比하면 굵이 낮고 鉢의 高가 높아진 형식이며 그 斷面은 右와 같고 口緣部는 도톰하게 말아서 붙였으며 그 외는 何等 수식이 없고 한가지 特異한 點은 바닥에서 굵 안쪽으로 直徑七·一cm의 구멍이 뚫려 있어 마치 李朝白磁大甁製作過程에서 밑에 最後로 구멍을 막기 前의 상태를 兪상케 한다. 적은 것은 高一五·三cm、口徑十·五cm、底徑九·三cm、胴幅 十三·七cm、底孔 七cm로서 前者와 그 形態가 거의 같으나 단지 口緣部가 그대로 똑바로 잘리웠고 底孔이 前者와 同大로서 적은 器體에 比하여 좀 크며 結局 底孔의 幅은 兩者가 同一하다고 볼 것이다. 釉調나 胎土는 兩者가 똑같으며 失透性灰白釉로서 釉에 小孔이 많이 생기고 黑少斑點이 많이 있으며 露胎는 赤褐色으로 胎土는 灰白의 粗質胎土이며 큰 것은 뚜껑을 놓고 구웠기 때문에 口緣部의 釉藥이 모래에 몹서 散亂되었다. 前者의 金公在仁의 墓誌와 釉調나 胎土로 보아 아마 같은 地方 또는 같은 窯에서 구워낸 것이 아닌가 한다. 墓誌全文은 다음과 같다.



學生義城金公之墓異坐

公諱景漢字士口開  
巖字宏六代孫監司

聲久孫考汝鍵修撰妣  
廣州李氏休命女生丁卯  
卒己卯二月二十日配□□  
崔氏贈承旨斗樞女墓在

善山海□望月山乙坐□配定  
山李氏命□女墓在□南村  
益谷壬坐□君墓十里二子  
宅東縣監崔氏出尙東李氏  
出

六代孫喆林鍾林  
七代孫昌世昌一  
等埋

資料

始興 塔洞의 三層石塔

文 甲 洙

京水街道 始興洞에서 虎壓寺에 가는 길 中間地點 始興郡 東面 塔洞 발  
가운데 小規模의 三層石塔 一基가 遺存한다.

이 곳 一帶에는 다른 遺物은 찾아 볼 수 없고 조그만 寺址였다고만  
口傳할 뿐 寺名은 전혀 알 길이 없다.

塔은 花崗石의 方形인데 現存狀態는 露盤以上의 塔頂部를 缺하고 其  
外部分도 破損이 甚하다. 即 三層과 二層 屋蓋는 세귀가, 初層 屋蓋는  
네귀가 全部 破損되었으며 一層 屋身도 塔下에 떨어져 깨어진 채 三層 屋  
身이 二層 屋身자리에 놓여 있어 不均衡하다. 塔에는 이렇다 할 彫飾이나  
隅柱「물딩」副緣等 痕跡이 보이지 않으며 素朴한 手法이다.

× 標 筆者補入  
○ 標 호린 것의 補入